

법어

불교스카우트 어린이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불교스카우트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을 부처님께 정중하게 알려드리는 자리입니다. 뜻 깊은 일이니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부처님께서 ‘착한 벗은 성스러운 수행의 길’ 이라고 하신 것은, 바로 벗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친구의 영향력은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을 알려면 친구를 보면 된다.’ 라는 말처럼 친구가 자신의 마음가짐을 나타내는 실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학교와 사찰에서 불교스카우트는 부처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좋은 친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는 많은 친구가 있습니다. 가끔 다투기도 하지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즐거운 시간이 더 많습니다.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기 때문에 서로 조금씩 닮아가며 생각과 행동이 비슷해지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구는 가까이에 있으면서 서로에게 아주 중요합니다.

옛날 부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길을 걷다가 종이 한 장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그 종이가 무엇에 쓰인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버려진 종이이지만 아직도 향냄새가 남아있다고, 향을 썼던 종이라고 답하였습니다.

다시 부처님께서는 아무 말도 없이 계속 길을 가셨습니다. 한참을 가다가 이번엔 새끼줄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리고 무엇에 쓰인 것인지 또 물으셨습니다. 제자는 비린내가 난다고 생선을 묶었던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을 둘러보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본래는 깨끗하지만 자신의 행동에 따라 죄와 복을 받게 됩니다. 착한 사람을 가까이 하면 생각이 높고 맑아지며, 나쁜 습관을 가진 사람을 가까이 하면 나쁜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마치 종이가 향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향내가 나고, 새끼줄은 생선을 가까이 하였기 때문에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다른 사람에게 점점 물들어 가면서도 사람들은 그걸 깨닫지 못합니다.”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마음이 편안해지고 열심히 수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향을 쓰면 향내가 나고, 생선을 쓰면 비린내가 나듯이 친구도 마찬가지로입니다. 좋은 친구를 가까이 하면 나도 모르게 좋은 습관이 많아집니다. 친구의 좋은 점, 나의 좋은 점을 함께 나누어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기 위해서는 먼저 나부터 좋은 친구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불교스카우트 대원 여러분!

불교스카우트 대원이 된 것은 좋은 친구를 만난 것입니다. 불교 스카우트는 여러분들이 세계적인 인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인연이 될 것입니다.

좋은 벗들과 함께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부처님 전에 기원합니다.

불기2556년 6월 9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승